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제194호(통권589호) 포덕 163(2022)년 5월 26일(목요일)
 발행인 : 박상종 / 편집인 겸 주간 : 주용덕 / 인쇄인 : 윤병업 / 발행소 : 천도교중앙총부

모심으로 하나 되는



의암성사 순국 100주기 추모식 봉행

5월 19일 중앙대교당, 학술문화제, 추모행사, 우이동 묘소 참배



의암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중앙총부는 5월 19일 추모식 등 추모행사를 성대하게 봉행하였다. 추모행사는 오전 9시 우이동 성사묘소 참례식, 10시 30분 전국 청수 모이기, 11시 중앙대교당 추모식, 오후 1시 30분 추모행사, 2시 30분 '주문으로 하나되기'로 이어졌다.

우이동 성사묘소 참례식은 정갑선 교무관장의 집례로 천도교 의절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박상종 교령, 연원회 이정희 의장, 김산 부의장, 김성환 부의장, 주용덕 총무원장, 최홍규 종의원 부의장 외에 다수의 교인이 참여하였다.

주요 외빈은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박경수 강북구청장, 허현 광복회장(권한대행), 나영의 민족대표33인 유족회

장, 김재옥 민족대표33인 기념사업회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임숙자 3·1여성동지회장, 김관수 한문화국제협회장,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회장 외 임원 10여 명 등이다.

중앙대교당에서 봉행된 추모식은 개식과 국민의례, 청수봉진, 심고, 주문3회 병송, 경전봉독(성령출세설), 천덕송합창(의암성사 추모가), 추념사, 헌사, 분향, 심고, 폐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념사에서 박상종 교령은 "수도에 힘써서 진실로 참뜻을 행하는 진정한 한울사람이 되어 한울님을 공경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광복회 허현 회장(권한대행) 그리고 천도교 어린이를

대표하여 서울교구 박김한솔(중2) 동덕이 헌사하였다.

특히 박김한솔 어린이는 "성사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성스러운 대교당을 사랑합니다/ 역시 성스러운 기운 안에서/ 뜻을 만난 나무처럼/ 저희들 세상/ 고스란히 담아내는 푸른 산이 되겠습니다", "성사님 성령 그대로 모시어/ 거듭 살아나는 여진이 되겠습니다"라고 성사님을 추모하였다.

중식 후 제2부 학술문화제는 청년회 대학생단 김민경 동덕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천도교 연합합창단의 '별이 되어', '초정약수 음' 합창에 이어 임우남 동덕(방정환한울어린이집원장·부산남부직접전교실장)이 「성사의 삶과 인내천」이라는 주제로 감동의 '즉석 강

연'을 하였다.

이어서 민요자매의 '홀로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노래 공연과 전통무예 택견팀의 '우후청산' 택견공연이 있었다.

제3부 '주문으로 하나 되기'는 추모식 참가 일동이 3·7자 주문과 신사 주문을 105회 합송하는 시간이었다.

이미에 교화관장의 집례로 박상종 교령과 이정희 연원회의장, 주용덕 총무원장, 선우철수 종의원의장, 신명식 재단이사장, 정갑선 교무관장, 박정재 여성회본부회장, 김성환 도정, 박차귀 부산교구장 등 총부와 지방교구 원주직자 21명이 무대에서 주문을 외우고 방청석에서도 함께 주문을 합송하였다. 짧은 105회 합송시간이었지만 무대 위와 아래, 여기 저기서

눈물을 삼키며 또는 통곡하면서 주문을 합송하였다. 한 교인은 이날 감동에 대해 "성사님 가신지 100년이 지나 우리도의 성세가 이렇게도 쇠락하였다는 데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앞으로 100년의 중흥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데 눈물이 자꾸 나더라"면서 "옆 사람들의 주문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어 더욱 감격했다"고 전하였다.

중앙총부 이미에 교화관장은 "이번 의암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전국의 많은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사님을 함께 기리고, "특히 전국 교인들께서 주문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추념사

의암성사님 순국 100주기에 부쳐

쇠뿔인들 어찌 덩지 않으리오
 세번 나누고 합하는 연분을 지으니
 늙은 용은 폐택으로 돌아가고
 철새는 가을 한올로 보내고
 손을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니
 이별하는 말인들 어찌 선명하리오
 앞길에 더욱 어려움이 많으리니
 뒷일을 여러 어진이에게 맡기노라

성사님 순도하신 지 백 년이라는 세월에 다다른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우리 천도교인 그 누구라도
 이 말씀을 되뇌이는 심정에 어찌 통분이 없으리오.

해월신사님을 무참히 보내신 후
 비분강개의 심정을 떨치며
 교단의 기강을 밝게 세우고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길로 나아가기를
 맹세하시고
 고단하고도 험난한 역사의 중심에서 교도들을 인도하시었으니
 어느 한 순간인들 편안하고 조용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사님 가신 이후 더욱 고난에 찬 시절이 오리라 내다보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리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남은 이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지만

저희들은 오는 시절의 굴곡을 있는 그대로 세차게 맞으며
 진분을 쓴 채 방향을 잃은 듯 어둡기만 합니다

무수한 역사의 고비를 탁월한 지도력으로 끌어오신 성사님을 개혁가,
 민족독립투사, 혁명가 등으로 부르지만
 가장 정확한 호칭은
 한올님을 온전히 믿고 스승님께 수명을 비는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성 경 신에 능한 온전한 수도자로서,

수운대신사님과 해월신사님 심법을
 한치의 틈도 없이 창창히 이어주신

밝고 밝은 큰 성인이며
 영도자 이십니다

용담 성운은 한올과 같이 무궁하여
 길이 살아 죽지 않는 지라
 해월 신사께서 전하여 주시고
 해를 타고 한올에 이르러
 아득하게 선대로 향하였으나
 일에 간섭치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이
 길이 내 마음에 모시었도다...

성사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성사님...
 저희들 역시
 일에 간섭치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는
 성사님을 길이 내 마음에 모시어

광제창생 포덕천하 보국안민의 직임을
 이 시대에 맞게
 알맞게 나누어지고서
 밝게 기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부디 감응하옵소서

성사님 말씀처럼
 어렵고 어려운 때일수록 한올님과 스승님의 간섭하시는 조화가 아니면
 인력으로써 어찌 살기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에 힘써서
 진실로 참뜻을 행하는 진정한 한올사람이 되어
 한올님을 공경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포덕 163년 5월 19일
 천도교 교령 박상종 삼고



5월19일 의암 손병희 성사 묘소 참례후 내외빈과 함께

헌사

성사님의 삶은
오로지 창생을 위해 사는 것이었지요

성사님의 눈빛만으로도 불의를 행한 자들을 바르게 돌려 놓으셨지요
성사님께서서는 어린 저희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비 온 뒤에
붉은 꽃은 더욱 붉게,
푸른 잎은 더욱 선명히 푸르게
마치 자유의 기운을 흠뻑 들이 쉬면서 춤추는 듯 새로워진 세상이라고
찬양하셨지요
우뚝 솟은 저 산의 기상에 빗대시며
저희들에게 후일을 기약하셨지요

이제 저희들이
성사님의 성령을 길이 모시어
성사님 마음을 꼭 붙잡고
고리를 만들고 또 고리를 만들어
끈을 이어 가겠습니다
성사님께서 평생 맹세 하시면서 마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 참뜻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성사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성스러운 대교당을 사랑합니다
역시 성스러운 기운 안에서
뜻을 만난 나무처럼
저희들 세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푸른 산이 되겠습니다
성사님께서 이별하는 말씀조차 선명히 할 수 없으셨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활짝 넘어설 수 있도록
성사님 성령 그대로 모시어
거듭 살아나는 어진이가 되겠습니다
성사님의 성령이시어
부디 감응하옵소서

어린이 심고

박상종 교령, 은성당 조동원 종법사 예방

5월 24일, 홍천 가리산 수도원



5월 24일 박상종 교령은 홍천 가리산 수도원으로 은성당 조동원 종법사님을 찾아 뵈었다.
조동원 종법사는 박상종 교령에게 “좋은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열심히 보고 스승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특히 탄도유심급을 위

위 경전 말씀대로 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교단을 위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박상종 교령은 “교단을 위해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어 오래 우리들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사설

의암성사 순도·순국 100주기를 맞으며

올해는 3세 교조이시며 3·1독립운동의 주역이신 의암 손병희 성사 순도순국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중앙총부에서는 동학혁명과 3·1독립운동이라는 불후의 역사적 위업을 영도하고, 은도 시대의 박해받던 동학을 천도교로 현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으로 발전시킨 의암성사의 추모식을 봉행하였다. 특히, 전국의 교인들이 중앙대교당에서 성사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교단 중흥을 위해 온 힘을 모으는 결의로 37자 주문, 신사주문을 합송했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3·1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으로 헌법 전문에 명시될 수 있었던 것은 의암성사의 탁월한 영도력의 소산이었다. 의암성사는 바른 판단과 강한 지도력으로 기독교, 불교 등 타종단과의 연대, 제휴를 일궈내 대중적, 일원적, 비폭력적 투쟁 방법으로 거사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였다.

성사께서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맹세하며 위이동에 봉황각을 건립한 후 3년 동안 7차에 걸쳐 총 483명의 주요 교역자들을 불러 49일간씩 특별수련을 시켰다.

수련 목적을 이신환성(以身煥性)으로 정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다는 각오를 확실하게 심어 주었다. 그러한 각오는 전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천도교는 3백만 대 교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의

암성사의 패기와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고 지켜나가야겠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교세가 약해지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소외된 감이 적지 않다. 과거 역사에만 매달려 과거 영광만 소환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겠다. 추모식을 계기로 성사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가슴에 포덕의 불을 다시 지펴야겠다.

100주기 추모식 행사로 대교당 안에 울려 퍼지는 주문 소리는 한울님의 지극한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을 하나로 이어주는 감동의 울림이었다.

대교당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합송한 주문 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겪어보는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았는가?

아직도 그 진한 감동의 여운이 가지 않는다. 그 주문으로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대교당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져나갔으리라.

이 모든 것은 새벽잠을 설치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지방교구 동덕님의 정성과,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함께 해주신 수 많은 동덕님 덕분이다.

스승님의 업적을 기리고 효시로 삼아 천도교의 진리에 대한 본을 세움에 있어, 이번 추모식을 주춧돌 삼아 교단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정과 발걸음을 쉬지 않아야겠다.

스승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천도교인이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의 주문 소리가 온 누리에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교령사 예방

5월 26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5월 26일 대통령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교령사를 예방하였다.
강승규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종교단체 협조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교령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자, 박상종 교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

랑할 거리 중 가장 큰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글’이고 다른 하나가 ‘천도교’다.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의 완성이다”라며 강승규 수석에게 천도교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의암성사, 독립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동학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순국 100주기



동학학회(회장 임형진)는 의암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5월 19일 오후 2시 수운회관 306호에서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의암성사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이문상 총무의 사회로 임형진 회장의 개회사, 박상종 교령과 김재욱 민족대표 33인기념사업회장의 축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의 순으로 진행되

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의암 손병희의 생애와 민족운동」이라는 기조강연에서 "개인의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의암 손병희 선생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학혁명, 천도교, 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변혁을 주도한 중심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주제발표는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 부소장(상주선도사)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 주제는 조규태 한성대 교수의 「의암 손병희와 민족운동:근대화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제2 주제는 성강현 동의대 겸임교수(직접도훈)의 「3·1운동과 의암 손병희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제3 주제는 임형진 경희대 교수의 「의암 손병희의 독립국가사상 '동학혁명에서 3·1혁명으로」, 제4 주제는 박세준 덕성여대

교수의 「한국독립운동과 의암 손병희의 역사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되었다. 이들 각 발표에 대해 이시중(민화협 사무처장), 조성운(동국대 겸임교수), 조극훈(경기대 교수), 김영진(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을 맡았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천도교중앙총부와 국가보훈처가 후원하였으며, 민족대표 33인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주최되었다.

정읍 황토현,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기념공원 개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 전시관도 새로 개관



기념식 후 왕기석 명창의 공연 장면

동학농민혁명 제128주년을 맞아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5월 11일 기념식과 기념공원 개원식을 아울러 가졌다. 이날 기념식 및 개원식은 오후 3시 황토현 전적지에서 주용덕 종무원장, 이미애 교화관장을 비롯하여 전국 천도교인, 유족회원, 전병극 문화관광부 제1차관, 신순철 재단이사장, 송하진 전북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다'를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길놀이패의 기념공원 길놀이, 유관 기관장의 추모식, 오프닝 대북 공연, 주제 영상 상영에 이어 개식선언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국민의례, 문체부 장관 기념사(전병극 차관 대독), 최태성 등 축하

영상, 신순철 이사장의 경과보고, 내빈 및 기념사업 단체 대표의 합토식, 국악인 송소희와 청소년합창단의 기념공연으로 마쳤다. 식후 행사는 전시관 관람, 식수식, 왕기석 명창과 정읍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창무극 '천명' 중 하이라이트) 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사적 295호인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개원하였다. 기념공원은 총 면적

30만 1329㎡에 사업비 37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묘역과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연구·교육하는 연수동, 전시관, 야외 캠핑장,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기념공원 중앙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들어섰다.



공원 개원 기념 식수, 주용덕 종무원장(우측 두번째)

제128주년 동학혁명 기념일, 각종행사 열려

- 5월 11일, 정읍, 공주, 장흥, 산청 등에서 기념식 봉행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 128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이 주관하는 기념식이, 공주시는 우금티 전적지에서, 장흥군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산청군은 영남지역 동학농민혁명 발상기념비에서 각각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박상종 교령은 천도교 의식으로 봉행하는 경남 산청 기념식에 참여하여 격려사를 하였다.

산청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산청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산청군, 산청군의회,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경상도연원회 후원으로 동학농민혁명유족, 기관장, 기념사업회, 관련단체, 지역민, 경상도 지역 천도교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격려사를 하는 박상종 교령,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동학농민혁명 영남지역 발상기념비 앞

정의적 부회장(진주교구장)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광암 박상종 교령은 격려사에서 “동학혁명은 사람을 한울처럼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며,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민중항쟁이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적 민주주의 운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제128주년 동학혁명기념일을 맞이하여 산청 동학혁명군의 기포를 기념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기념식을 봉행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 하재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사를 드린

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산청군 시천면 이연주 면장 축사, 경남도 동학농민혁명지원조례 제정을 주관한 경남도의회 성연석 도의원 축사, 동학농민혁명 산청 기포기념탑 건립부터 산청군 지원조례 제정을 주관한 산청군의회 심재화 의장 축사, 천도교경상도연원회 박충남 운영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편 박상종 교령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천도교에 입교해야만 한다”며 기념식을 함께 준비한 하재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에 천도교에 입교할 것을 권하였는데, 하재호회장은 기념식 후 박상종 교령을 만나 ‘천도교에 입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장흥군,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성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길놀이 등 다양한 행사



장흥군 5월 11일 오전 11시 장흥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제128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전라남도과 장흥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했다. 기념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장흥군수 권한대행 임성수 부군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 무안기념사업회, 유족회 외에도 학생과 관광객 등이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동학농민기념탑에서부터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말을 탄 이소사의 등장과 함께 국악극이 진행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판화작업을 하는 박흥규 작가의 판화체험 등 부대행사가 있었다. 장흥군과 사단법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 영령을 위로하며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가져 '자주와 평등의 송고한 정신' 기려, 우금티에서



공주시는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5월 11일 우금티 전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순종 부시장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하였으며, 길놀이 공연과 추모 시 낭송, 헌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선원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봉건

제도의 개혁과 일본제국의 국권침탈에 맞서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아직까지 독립운동서훈을 받지 못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서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우금티 전적지에 2027년까지 총 122억 원을 투입해 방문자센터 건립과 광장 조성, 기념관 건립 등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기로 하였다.

충북, 동학농민혁명기념식 100주년 어린이날 행사도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5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사업회 김양식 회장은 “4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100년에 걸친 동학 정신의 집단 기억이 대중적 의지로 부활한 것이고 동학의 가치와 진실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기념일 제

정은 자유와 평등 민주를 기반으로 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지향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과 관련해 이 땅에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린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과 '짜짜꿍'의 동요작가 정순철 선생을 기리는 시간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국 수도원장 회의 개최

하계수련에 대한 논의



포덕 163년 하계수련을 논의하기 위한 수도원장회의가 5월 26일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수운회관 907호 회의실에서 열린 수도원장회의는 주용덕 총무원장의 개회사, 박상중 교령의 격려사에 이어 금년도 하계수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재가 수련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단체수련은 코로나 진정 상황에 따라 6월 중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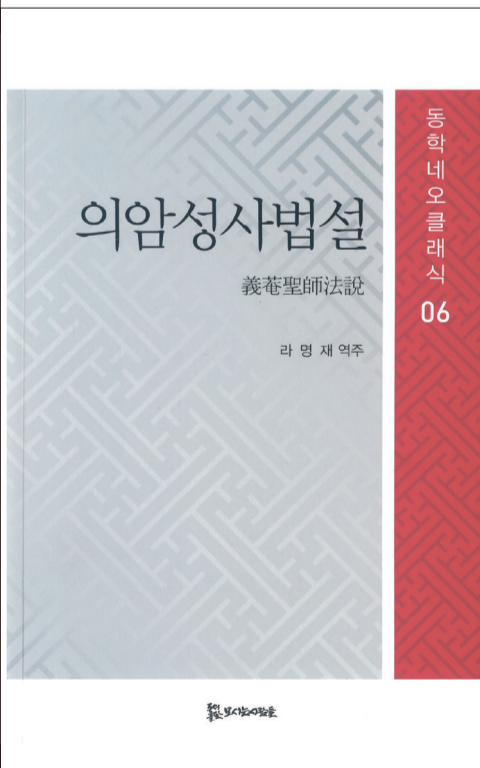
제1차 종의원 운영위원회 개최

5월 12일, 종의원 운영계획안 등 논의



5월 12일 제1차 종의원(의장 선우철수) 운영위원회가 수운회관 907호에서 열렸다. 박상중 교령은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라고 격려사를 하였다. 운영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의원 운영 계획안, 분과위원회 구성, 종의원 워크숍의 건 등을 논의하였다.

신간안내 《의암성사법설》



역 주: 라명재
분 야: 인문 / 동양철학
발행처: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발행일: 2022년 5월 25일
가 격: 22,000원
사 양: 512쪽 / 140×210mm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 성사의 말씀을 수록한 『의암성사법설』을 주해한 것으로, 총 33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의암성사법설』 심화된 사상적 담론을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무체법경」은 동학-천도교의 수행의 대요를 심층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동학의 근대 시기, 즉 천도교 시대에 적응한 동학 교리와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비전을 살펴볼 수 있다.

역자 소개 _라명재(천도교 송탄교구장)

현재 의업에 종사하고 있다. 증조부 때부터 동학-천도교를 신앙한 집에서 태어나 천도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자랐다. 대학생 시절부터 공부한 것을 엮어낸 『천도교경전 공부하기』, 『해월신사법설』 등의 역사가 있다

제1차 건설자문위원회 개최

5월 17일, 서울교구 철거 후 조경 건 등 논의



5월 17일 제1차 건설자문위원회의가 수운회관 907호에서 열렸다. 박상중 교령은 각 위원에게 도침을 수여한 후 “천도교에 보안시설이 없어 교인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건설자문위에서 보안시설에 관한 연구 및 개발계획 등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마포교구 김산 동덕이 위원장으로 서울교구 박도연 동덕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건설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총부(재단)에서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산 위원장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건설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제1차 여성회 중앙본부 상임위원회의

5월 20일, 회장 이취임식 및 인장 수여 등



여성회 중앙본부는 5월 20일 11시 수운회관에서 진수당 박혜정 총무부장의 집례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박차귀 전 회장의 이임식과 박정재 제42대 회장의 취임식을 하였다. 주용덕 총무원장으로부터 새 집행부 회장(박정재)과 감사(박태량, 이미희)에 대한 인장 수여 후 박상중 교령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포덕 163년도 여성회 주요사업계획안으로 ①천도교여성회 100년사 발행 준비 건 ②천도교여성회 100주년기념사업 추진단 구성의 건 ③청수상제작의 건 ④북호동수도원의 건 ⑤우이동여성교육복지관의 건 ⑥회보성금 납부의 건 ⑦여성회관 건립성금 모금의 건 등을 논의하였다.



여성회 고문, 상임위원 단체사진, 앞에서 2번째줄 가운데가 신임 박정재 회장

사천교구 입교식 봉행

5월 8일, 김도미, 최경남, 최귀남, 김혜주 등 4명 입교



사천교구(교구장 신명식)는 5월 8일 사천교구 수덕실에서 시일식 후 김도미(전교인 계암 하재식), 최경남, 최귀남, 김혜주(전교인 인혜당 최정남) 등 4명의 입교식을 봉행하였다.

이날 입교식은 울암 신명식 교구장의 집례로 참례인 명암 신만석 선도사 등 많은 동덕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행하였다.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 병송, 수교인의 서천문 낭독, 전교인이 수교인에게 주문전달, 전교인 수교인 청수분작. 상향배

례, 심고의 순으로 입교식을 마쳤다.

울암 신명식 교구장은 “처음 천도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울님의 뜻과 스승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자세한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경전 공부에 앞서 교인으로서 기본으로 행해야 할 것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교인을 비롯한 참례자 모든 동덕들께서 입교하신 분이 마음 편히 수도 정념하여 독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신명식)

서강대 종교학과 학생, 중앙대교당 견학

외국인 포함 35명, 천도교 교리교사 청취



5월 7일 오후 4시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김재영 교수를 인솔자로 외국인 학생을 포함 35명이 중앙대교당을 답사하고 천

도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날 견학에서 성암 정갑선 교무관장이 천도교의 신앙과 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성여자 중고생 의암성사 묘소 참례

5월 25일, 60세 이상 여성 300여명



마포에 소재한 일성여자 중·고등학교(교장 이선재)에서 5월25일 오전, 오후로 대형 버스 8대로 분승 300여명이 김인숙 교사의 인솔로 봉황각을 탐방하고 의암성사 묘소에 헌화하고, 묘소 참례식을 가졌다. 일성여자중학교는 “세상은 배운 만

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는 기치 아래 60세 이상의 여성분들로서 매년 봉황각을 찾아오고 있다. 이날 박충남 의창수도원장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봉황각과 성사님 순국 100주년을 설명하고 강의하였다. (글:사진/박충남)

올해 5번째 온라인 어린이시일식

5월 8일, 어린이날100주년 의미 등 설명



5월 8일, 포덕 163년도 다섯 번째 온라인 어린이시일식이 수운회관 507호 방정환어린이도서관에서 봉행되었다.

수원교구 정서현 어린이가 집례하고 서울교구 김교영 어린이가 해월신사법설 「심령지령」을 봉독하였다.

매회 집례를 맡은 어린이와 경전을 봉독하는 어린이는 집에서 여러 번 연습하며 시일식을 준비한다. 낙안회에서 집례와 경전 봉독 어린이에게 작은 선물로 응원하고 있지만 정성스럽게 시일식을 준비하는 어린이의 마음이 매우 감동적

이다.

이번 어린이시일식에는 아버지날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또 100년 전인 1922년 5월 1일에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기쁘게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린, 첫 번째 어린이날 잔치 이야기와 어린이를 공경하자던 방정환 선생의 마음으로 시일 참가 어린이 한 명 한 명과 눈인사를 맞추고 서로 공경하는 얼굴 인사를 나누면서 설교 시간을 대신하였다.

어린이시일식 후에는 낙안회 정진화 선생님께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낙안회에서 자체 제작한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물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기를 하면서 의암성사와 당시 많은 교역자들의 마음을 되짚어 보았다.

(글:사진/이윤정)

의암성사 순도 100주년 성금 (163.5.19)		성주현 관의 100,000		권상분 용담 50,000		박해용 영등포 50,000		정형철 부산시 50,000		박명옥 대전 30,000				
박상중	교령	금일봉	이원벽	용담	100,000	김명덕	강남	50,000	서동순	용담	50,000	배명숙	마포	30,000
김영옥	부산시	200,000	이정희	대전	100,000	김순자	사천	50,000	서산교구	서산	50,000	윤순필	대동	30,000
도상록	대구시	200,000	장구갑	수원	100,000	김영희	대전	50,000	성창운	영등포	50,000	이순옥	인천	30,000
한발신도교구		200,000	정미라	경주	100,000	김중권	대동	50,000	신병철	마산	50,000	이재선	전주	30,000
부산남부직접전교실		130,000	장구갑	수원	100,000	김학광	동작	50,000	심점례	도봉수유	50,000	전명운	시흥	30,000
이미애	서울	130,000	정의적	진주	100,000	김희수	마산	50,000	양숙자	부산시	50,000	함형숙	춘천	30,000
김경곤	강남	100,000	조용순	마산	100,000	남행지	용담	50,000	유순근	용담	50,000	고윤옥	한강	20,000
김도균	원주	100,000	주용덕	마산	100,000	도봉수유교구		50,000	윤영이	부산시	50,000	김성복	서울	20,000
김산	마포	100,000	청년회본부		100,000	류인간	통영	50,000	이동교	용담	50,000	박은조	강남	20,000
김성환	용담	100,000	최상락용담수도원		100,000	문범식	서울	50,000	이미숙,박진현공향		50,000	백호을		20,000
마동근	관의	100,000	최상은	영등포	100,000	박경천	경주	50,000	이윤영	전주	50,000	한희철	강남	20,000
마산교구	경산	100,000	최정남	사천	100,000	박경희	대동	50,000	이흥자	마포	50,000	홍래준	당산	20,000
박연환	마주	100,000	강선순	부산시	50,000	박내천	경주	50,000	장예성	진주시	50,000	구수웅	당산	30,000
박인준	동천	100,000	고복심	한강	50,000	박옥자	부산시	50,000	장인갑	대동	50,000	김명자	대동	30,000
변중계	서울	100,000	고정섭	황화	50,000	박정섭	용담	50,000	전춘자	부산시	50,000	김진열	대동	30,000
			구본기	북부산	50,000	박정계	서울	50,000	정갑선	진주시	50,000	김진순	마포	30,000
									경의맹	통영	50,000	도경교구	도경	30,000
												무기명		52,000

내척·내수도문비와 복호동수도원 청소

5월 16일 여성회본부, 경북 김천시 구성면 복호동에서



여성회본부(회장: 박장재)는 5월 16일(월) 오전11시 경북 김천시 구성면 복호동에서 회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척·내수도문비와 복호동수도원 방문 참례식을 가졌다.

먼저 내척·내수도문비에 도착하여



물청소와 잡초 뽑기 등 주변 정비와 비문의 묵은 때를 청소하고, 조순덕 교회부장의 집례로 참례식을 가진 후 복호동수도원으로 이동하여 방청소를 하고 간단한 참례식을 가졌다.

박장재 본부회장은 여성회본부의 실무진과 회원들, 대전지부, 의정부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한다며 “복호동수도원 운영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고윤지 고문은 “예전에, 수련생 이불 등을 기증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수도원 관리부실이 마음아프다”고 하였다. 이어 동학의 딸 1~2절 합창 후 신사주문 21회 합독하고 참례식을 마쳤다.

한강교구, 제41주년 창립기념식



한강교구(교구장 주용수)는 5월 8일 시일식 후 교구창설 41주년 기념식을 봉

행하였다. 한강교구는 41년 전 5월 10일 창설하였다.

영등포교구 어버이날 행사



영등포교구(교구장 조광걸)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영등포교구 인근 식당에서 전체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조광걸 교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교구 식당을 2년 6개월 이상 운영치 못하고 있

다. 어버이날을 맞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특별히 맛집을 찾아왔다”며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고소감을 밝혔다.

동학민족통일회 제12기 총회 개최

5월 20일, 대표상임의장에 노태구 직접도훈 선출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는 5월 20일 제12기 정기총회를 수운회관 709호 동학민족통일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포덕 161년도·162년도 결산을 서면보고로 처리하고 이어서 정관변경에 대해 손윤의장이 동의하여 재청, 삼청 후 박수로 통과시켰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표상임의장에 노태구(만75세) 직접도훈을, 상임의장에 손윤 전 상임의장을 선출하였으며, 공동

의장에 이윤영, 황문식 2명을 추가 선임하였고 이상면 중학대학원장을 상임고문에 추대하였다.

이날 총회는 총원 35명중 22명 참석(위임14명)하여 성원되었다.

대표상임의장에 선출된 노태구 직접도훈은 정치외교학과 박사이며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로 『통일과 인간중심의 정치학』, 『민족통일학 발전의 변증법으로』 등의 저서가 있다.

부산시교구 여성회 창립76주년 및 어버이날 행사



부산시교구 여성회(회장 강선순)는 5월 8일 시일식 후 창립기념식 행사를 하였다. 식후에는 교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다. 여성회 임원진

들이 고운 한복 차림으로 어르신들께 큰절을 드린 후 ‘어머님의 마음, 홀로 아리랑(천도아리랑)을 모두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글:사진/류옥재)

연·월성미 납부 안내

- 도정, 직접도훈, 교구장, 전교실장, 교구추진위원장께

- 오관 실행은 모든 교인의 권리아자 의무입니다.
- 연·월성미의 납부는 일상에서 신앙심에 대한 유형의 표시로 나타내는 순일한 성경신(誠敬信)의 증표입니다.

1) 월성미 납부: 교인 1인당 월 10,000원

- 교구에서는 다음달 20일까지 30%를 중앙총부에 납부

2) 연성미 납부: 교인당 년 40,000원 (반기 20,000원)

- 상반기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는 2월 15일까지 30%를 중앙총부에 납부

3) 납부계좌

우리은행 443-137754-13-001 천도교중앙총부

우체국 010041-31-000730 경리관장

농협 301-0075-0703-21 천도교중앙총부

4) 납부명세서 제출

- 이메일: jangnam83@hanmail.net

- Fax 02-739-4533 - 우편 0314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연원회 의장 이정희 / 총무원장 주용덕 심고